

베드로 사도좌 축일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백 남 용

$\text{♩} = 54$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 라.

(제 6번 선법)

1.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 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2. 당신이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3. 원수 - 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4. 제한 - 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1.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2.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3.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4. 저는 오래 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그리고 리오성가 시편 낭송율 여덟 가지 선법에 따라 노래할 때에는 아래의 원칙을 따릅니다.

가) 후렴은 교종이 함께 부르며, 시편 낭송은 독창자나 합창단의 유니슨으로 낭송됩니다.

나) 팔호 안의 음은 해당 가사가 없을 때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다) 악센트 음은 강박자를 갖습니다.

라) Flexa(십자표시) 부분은 이번의 2,3,4절처럼 시편 전반부가 짧은 경우에는 생략하고 다음 소절로 연결합니다.

마) 이번의 4절처럼 후반이 짧을 때에는 중간 휴식 없이 마지막 소절로 연결합니다.